

# 강진군, 대파 흑색썩음균핵병 해결에 사활

### 성전면 대월마을 대파농장서 친환경 재배 농업인 대상 최고 전문가 초빙 컨설팅·친환경 방제 방법 적극 모색

강진군은 최근 성전면 대월마을 대파농장에서 관내 대파 친환경 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흑색썩음균핵병에 대한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흑색썩음균핵병은 대파나 마늘 연작 재배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토양병으로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점차 피해면적이 늘어나 수확량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주로 연작지에서 발생이 심한데 뿌리 부위에 검게 썩으면서 흰색 균사를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 재배를 주로 하는 성전면 일대 대파 단지는, 토양소독약제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나타나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군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대파연구회는 국내 최고의 토양전문가와 대파재배 전문가를 잇달아 초청

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친환경재배에 활용 가능한 생석회살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흑색썩음균핵병 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미생물 '버크홀레데리아 파이로시나야'를 미생물배양실에서 별도로 배양해, 대파뿐 아니라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에 공급해 정식전 토양 처리와 생육기 관주 처리를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성전면 친환경 대파 단지는 회원 15명이 7ha 면적에서 친환경 대파를 생산해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다. 매년 연 매출 5억 원 가량을 달성하는 주요 소득원이다. 군에서는 대파재배에 필요한 단동하우스 지원과 무인방제장비를 꾸준히 지원하는 등 농업인 육성에 힘



쓰고 있다.

전문가 현장컨설팅에 참석한 친환경대파연구회 박상석 회장은 "대파 친환경 재배에서 가장 골치아픈 병이 흑색썩음균핵병인데 전문가의 자문과 군의 지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

는 듯하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군농업기술센터 정동완 소장은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적시 적소에 활용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완도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 선정

완도군이 법무부에서 주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군은 지난해 406명을 도입해 관내 어가에 배치했다.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 가용 인원인 1,009명을 배정받는 등 인력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어가 당 외국인 계절 근로자 2명씩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전북 종자 생산 어가에서는 생산 규모가 250만 마리(파판 50만 장) 미만이면 고용 허용 인원 5명에서 7명으로, 300만 마리(파판 60만 장)까지는 6명에서 8명으로, 350만 마리(파판 70만 장)까지는 7명에서 9명으로 증가된다.

어패류(굴, 가리비 등) 생산 어가에서는 12톤 미만이면 5명에서 7명으로, 12~20톤 미만이면 6명에서 8명으로, 20~30톤 미만이면 7명에서 9명으로 증가되며, 해조류 양식 어가의 경우 기존 5명에서 7명까지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우수 농수산물 유통·판매 소득증대 총력 유통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개최...농수산물 유통 중·장기 기본계획 발판 마련

진도군이 농수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지난 9일 진도군 농수산물 유통 관련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소통·유통 함께 잘사는 진도'라는 주제로 열렸다.

마케팅 컨설턴트 황인선 교수가 '마음을 사는 마케팅, 빅샷'이라는 주제로 고객 니즈(Needs) 충족과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제시하는 강연을 실시했다.

그룹별 토론을 통해 진도군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향후 농수산물 유통의 중·장기 실천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박시우 대표(진도강황영농조합법인)는 "마케팅 강의를 통해 올해 판매

계획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각 분야 관계자들과 함께한 토론회를 통해 유통 등 사업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8기 김희수 진도군수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우수 농·수산물을 통한 관리하고 마케팅, 홍보를 통한 유통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워크숍을 통해 진도군 우수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쟁력을 준비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해남군, 새봄맞이 방치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 3월 초까지 방치쓰레기 총 800여 톤 수거 예정

해남군은 봄을 앞두고, 방치생활쓰레기 일제 정리에 나선다.

군은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각 읍·면 마을단위 야산, 하천변, 임도 및 간척지 주변 등에 불법 투기해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번 방치쓰레기 일제 정리는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장비 임차와 인건비 등 5,853만여원을 투입해 실시되며, 2월 16일까지 사전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군은 방치쓰레기 일제 정리를 매년 반복하는 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양이 줄어지지 않는 실정임을 감안해 민관이 협력해 쓰레기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역점 추진하는 쓰레기 불법 소각 및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민참여 캠페인 '쓰레기 제로! 해남 515!'와 관련해 515개 마을별로 환경 정화 릴레이를 실시하고, 마을별로 마을 정화 활동, 상습 무단투기 지역 청소, 영농폐기물 집하장 정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캠페인 추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 읍면 주민속원사업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투기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하는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운영하고 무단 투기 단속반을 운영, 무단 투기자에 대한 색출과 과태료 부과 등도 강화해 나간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88개소 감시카메라와 428개소 안내판도 각각 20개소, 50개소를 추가해 확장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방치쓰레기 1,562톤을 수거, 처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일제 정리에도 불구하고 방치 쓰레기의 양이 줄고있지 않아 올해 대대적인 쓰레기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민들과 협력해 쓰레기 없는 가장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체험 프로그램 사전준비 돌입

장흥군이 2023년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체험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우드랜드 산림체험 프로그램은 산림치유, 숲해설 교육, 유아숲 교육 총 3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산림복지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각 분야 전문 인력(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은 우드랜드의 사계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프로그램 구성을 달리하여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체험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 장흥군민을 대상으로 산림치유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장흥군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